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정성욱 역)

길잡이글 · 신앙, 부흥주의 그리고 신앙감정

『신앙감정론』 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제3절, 인쇄 74~85쪽

🧭 흐름 한눈에

편집자 스미스는 먼저 자기 시대의 두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도덕이면 충분하고 과학만이 지식”이라는 세속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급하니 토론 말고 결단하라”는 부흥운동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이 둘 사이에서 『신앙감정론』이 주는 공헌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① 신앙을 도덕·감상·사회적 이상 같은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하지 않는다. ② '새 감각' 개념으로 지식을 넓혀서, 개인의 직접 체험과 이성을 함께 신앙 안에 지킨다. ③ 감정은 반드시 시험받아야 한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드워즈는 가슴의 신앙을 지지하지만, 절박함이나 몸의 현상이나 무지를 참 신앙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 뿌리내리고, 평생의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로 시험된다는 것입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이 글은 에드워즈 본문이 아니라 편집자의 해설입니다.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곳이 적습니다. 표에는 서문이 인용하거나 암시한 구절을 적고, 본문에는 없지만 연결해 읽으면 좋은 구절은 '(참고)'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스미스는 고전을 읽는 일이 “그 책의 중요성이 어디 있는지 각 세대가 다시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신학의 부흥과 개인 신앙의 부흥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반대편에는 신앙을 경계하는 비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이면 충분하고, 구원은 낡은 개념이며, 자연과학만이 믿을 만한 지식이고 나머지는 감정적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운동가들은 더 큰 소리로 맞섭니다. 상황은 급하고 사회는 불경건하며, 회심만이 답이고 토론하기엔 늦었으니 믿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이 곤경 앞에서 묻습니다.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양심적으로 일하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한 에드워즈가 오늘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1. 고전의 의미는 세대마다 새로 찾아야 한다
2. 세속 비판자: 도덕이면 충분, 과학만 지식
3. 부흥운동가: 급하다, 토론 말고 결단하라
4. 에드워즈는 부흥의 현장을 겪은 사상가다

📜 2. 세 가지 공헌 한눈에

스미스는 『신앙감정론』의 근본 공헌이 세 가지이고, 모두 오늘의 신앙 사상과 실천에 바로 적용된다고 정리합니다. 첫째, 에드워즈는 '새 감각'과 '새 본성' 가르침으로 삶 속의 고유한 종교적 차원을 되살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다른 것으로 환원(어떤 것을 더 단순한 다른 것으로 줄여 버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둘째, 개인의 직접 체험을 충분히 해석할 만큼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개인의 체험을 무시하지 않는 한,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지식이 설 자리가 있습니다. 셋째, 체험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나오더라도 '시험'을 거쳐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부흥주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초가 됩니다. 스미스는 덧붙입니다. 우리가 바로 에드워즈가 피하려 한 오류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에드워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1. ① 신앙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기
2. ② 체험을 품는 넓은 지식

4. 우리의 오류가 에드워즈를 더 잘 보게 한다

📜 3. 첫째 공헌: 신앙은 도덕도, 감상도, 사회운동도 아니다

스미스는 계몽주의 이후 서구가 신앙을 계속 오해해 왔다고 진단합니다. 신앙을 약간의 감정이 섞인 도덕으로 보거나, 사회·정치적 이상주의나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여겨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독교는 실용적 성향 때문에 신앙을 도덕으로 대체하고, 영적 믿음을 행위 아래에 두고, 최악의 경우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왔다고 봅니다. 에드워즈는 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감정론』에서 신앙은 사람의 본성 깊은 데서 나오는 마음의 보화이고,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사랑이며, 삶의 '핵심(heart)'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행위로 표현되지만 바른 행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스미스는 화이트헤드의 말을 빌립니다. “산술은 사용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신앙을 전인격, 마음의 근본 성향,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랑에서 찾는 어거스틴주의 전통을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도덕주의·감상주의·사회적 순응주의 같은 유사 신앙을 가려낼 수 있게 합니다.

1. 근대는 신앙을 도덕·사회운동으로 오해했다
2. 신앙은 행위로 드러나지만 행위가 아니다
3. 신앙은 삶의 핵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4. 의지의 성향에서 나오니 감상과도 다르다
5. 유사 신앙: 도덕주의·감상주의·순응주의

> **베드로전서 1:8**
> (참고) 『신앙감정론』 전체의 본문.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출발점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스미스는 우리 시대가 신앙뿐 아니라 '지식'도 잘못 이해해 왔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성공하고 실용주의 철학이 그것을 기술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지식은 객관적·보편적 진리를 찾는 비인격적 도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성은 개인의 삶과 상관없는 일반 진리만 다루는 추상적 기능이 되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체험의 불을 꺼야 하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성은 종교적 진리와 무관해졌고, 신앙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어서 과학의 그물을 빠져나간다”는 말처럼, 체험은 더 이상 이성이 생각할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스미스는 실존주의가 이런 과학적 관점이 충분하다는 생각에 도전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자가 아니었던 에드워즈도 같은 문제와 씨름했다고 봅니다.

1. 과학의 성공이 지식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었다
2. 아는 사람은 체험을 끄는 방관자가 되었다
3. 결과: 신앙은 '감정의 영역'으로 밀려남
4. 실존주의도 이 흐름에 맞섰다
5. 에드워즈도 같은 문제와 씨름했다

📜 5. 새 감각: 꿀은 맛봐야 단맛을 안다

에드워즈는 지식 안에 '감각적 요소'를 넣어서 지식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감각 체험은 언제나 직접 체험입니다. 일반 개념은 여럿이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다루지만, 어떤 것은 자기 감각으로 직접 알아야만 합니다. 꿀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꿀이 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개념을 동원해도 그 사랑의 의미를 전하기 어렵습니다. 에드워즈는 영국 경험철학을 따라 직접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에서는 그 체험이 '새 감각', '새 미각'의 모습을 띠며,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개념 수준에 머뭅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헤겔이 말한 경험철학의 원리가 “알려면 스스로 보고 그것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면, 에드워즈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스스로 느끼고 맛보아야 한다”입니다. 또한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는 어거스틴주의·청교도 전통을

스미스와는 다른 17세기 인물)의 영향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스미스는 지식을 지능 쪽으로만 보던 청교도의 치우침을 바로잡으려고 '영적 감각'이라는 개념을 내놓았고, 에드워즈의 '새 감각'도 같은 뜻입니다. 참 신앙을 단순한 교리 이해와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개념적 이해만으로는 교리를 일반 진리로 받아들일 뿐, 그것이 내 삶과 처지에 주는 영향을 느끼지 못합니다.

1. 꿀맛은 설명이 아니라 맛봐야 안다
2. 새 감각 없는 신앙은 개념에 머문다
3.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느끼고 맛봐야
4. 하나님의 빛을 이성으로만 그리지 않았다
5. 참 신앙 = 하나님의 탁월함을 맛봄

> **시편 34:8**
> (참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지식이라는 새 감각의 성경적 표현
>
>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시편 119:103**
> (참고) 말씀이 꿀보다 달다. 진리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맛으로 아는 경험
>
>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 6. 머리와 가슴을 잇는 지식: 잔치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

스미스는 '영적 지식'의 교리가 합리성과 직접 체험을 둘 다 신앙 안에 지켜 준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개인의 체험을 빼 버린 메마른 빛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전인적인 감각 기능으로 보면, 가슴과 의지, 곧 자아의 성향이 지식과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론과 관찰만으로 아는 것은 에드워즈가 말하는 '사변적' 앎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할 뿐, 인격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하지

대상에서 자아를 떼어 놓는 이성에 맞선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말로 하면, 기독교를 개념으로만 아는 것은 사람을 잔치의 구경꾼으로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자아가 참여하고 가슴과 의지가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안에 지식의 자리를 지키려면, 지식을 의지와 가슴이 함께 묶인 '통합된 자아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 영적 지식은 이성과 체험을 함께 지킨다
2. 사변적 앎은 나를 빼고 생각한다
3. 개념만 아는 신앙은 잔치 구경꾼이다
4. 지식은 가슴·의지와 묶인 전인의 기능

📜 7. 셋째 공헌: 감정은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한다

에드워즈는 감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감정도 반드시 시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은 자기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대한 감정적 판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가를 표지나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신약 성경이 줍니다. 스미스는 이것이 “직접 체험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그 체험을 공인된 시험대에 올리라”는, 극단으로 갈라지려는 두 견해를 하나로 묶는 민감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동시대인들은 이 일관성을 놓쳤습니다. 어떤 이는 혼란에 빠졌고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에드워즈가 가슴의 신앙을 지지하고 좁은 이성주의를 거부하자, 많은 이들은 그가 열광주의와 직통 계시까지 포함해 부흥운동 전체를 지지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광주의를 거부했고, 부흥사의 고조된 설교가 만든 대중 신앙 대부분을 거짓으로 평가했습니다. 참 신앙은 말로 교리를 받는 것 이상인 '능력'이라서 마음이 반드시 감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경련, 부르짖음, 흐르는 눈물, 내면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외적 표시는 늘 부흥운동의 떠들썩한 특징이었지만 참 신앙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1. 감정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2. 그러나 감정도 시험받아야 한다

4. 경련·부르짖음·눈물은 보증이 아니다

5. 에드워즈는 열광주의를 거부했다

> **요한일서 4:1**
> 서문 마지막에서 이 구절을 바꿔 인용. 영(감정)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셋째 공헌의 성경적 뼈대
>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디모데후서 3:5**
> (참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신앙. “참된 신앙은 능력”이라는 말과 연결
>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감정은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 8. 부흥주의와 갈라서는 두 지점: 절박함과 반지성

스미스는 부흥운동가의 동기를 공정하게 소개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흥운동가에게 전통주의는 신앙의 죽음이고, 각 사람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대신해 주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급함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토론하거나 비판할 여유가 없다고 여깁니다. 에드워즈는 여기에 일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는 참 신앙이 없고, 간접 신앙은 없다는 점에서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지점에서 부흥주의와 갈라섰습니다. 첫째, 절박함이 신앙의 진실함이나 신자의 신실함을 보여 준다는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에드워즈만큼 각 사람이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반복해서 외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박함 자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참인지, 그 신자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려 주지

거부했습니다. 동시대 반대자 촌시도 인정했듯, 에드워즈는 '배운 게 없어 순진하니 영적이다'라는 원시주의(배우지 않은 단순함이 더 영적이라는 생각)를 거부했습니다. 신학 연구에 '오염되지 않은' 영혼만 은사를 받는다는 주장에 반대했고, 회중에게 힘껏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직접 계시를 확신하는 순진한 부흥주의자는 성경이 뛰어가면서도 읽고 이해할 만큼 쉽다고 말하지만, 에드워즈는 이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동시에 능력으로 다가와야 했습니다.

1. 대신해 주는 신앙은 없다: 이 점은 동의
2. 절박함은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지 못한다
3. 들을 뿐 아니라 이해하고 맛봐야 한다
4. 무지가 영성이라는 원시주의를 거부
5. 말씀은 진리이자 능력으로 와야 한다

> **하박국 2:2**
>
> (암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성경은 배움 없이도 바로 안다는 부흥주의자의 주장 배경. 에드워즈는 이를 거부
>
>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 **데살로니가전서 1:5**
>
> (참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온다. 말씀은 '진리이자 능력'이라는 대목과 연결
>
>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신앙이란 없다.”

스미스는 부흥운동 방식으로 영혼을 추수하려는 최근 시도들을 『신앙감정론』의 눈으로 보라고 권합니다. 에드워즈는 은혜로운 감정을 잠깐 타올랐다 꺼지는 감정이나 짧은 수사적 설교의 효과와 구별하는 표지를 찾으며, 사물의 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자아 깊은 곳에서 영구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가 평생의 일과 예배 속에서 일관된 행위로 나타나는가? 스미스는 대부분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큰 이유 하나는 모든 것을 인간 의지로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는 도구로 보는 사회 풍조입니다. 에드워즈는 “신적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으로 이 타락의 뿌리를 비판했습니다. 신앙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만드는 순간 신앙은 거짓이 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지만, 에드워즈가 '네 번째 표지'에서 그리듯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사랑에 뿌리내릴 때만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만병통치약이나 개인·사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내세우면 신적 성격을 잃습니다. 스미스는 요한일서 4:1을 바꿔 읽으며 마무리합니다. “감정을 다 믿지 말고, 그 감정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감정이 세상에 나왔다.”

1. 기준 1: 깊은 곳의 영구적 변화
2. 기준 2: 평생의 일과 예배로 드러남
3. 신앙을 도구로 쓰는 순간 거짓이 된다
4. 참 신앙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5. 감정도 진짜 금화인지 시험하라

> **고린도전서 13:5**
> (암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신앙을 도구화하는 풍조를 비판하는 근거
>
>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2**
> (암시) 산을 옮길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사랑에 뿌리내릴 때만 능력 있다
>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서 5:22-23

(암시) “참된 믿음은 감정과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대목. 열매도 시험의 대상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1

(변형 인용) 영 대신 '감정'을 넣어 읽음. 이 서문 전체의 결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태복음 7:16

(참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 평생의 행위로 드러나는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 근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신앙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만들려는 순간 신앙은 거짓이 된다.”
(번역문을 줄여 옮김)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 무언가를 향해 강하게 끌리거나 밀어내는 움직임입니다.

새 감각(new sense)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꿀맛처럼 직접 '맛보아' 아는 마음의 감각입니다.

영적 지식
교리를 개념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가 내게 실제로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는 앎입니다.

사변적 지식
나와 상관없이 이론과 관찰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생각은 하지만 마음이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원
신앙을 도덕이나 사회운동처럼 더 단순한 다른 것으로 줄여서 바꿔치기하는 일입니다.

열광주의
몸의 격한 현상이나 내면의 음성 같은 체험을 곧바로 성령의 증거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직통 계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직접 새 메시지를 주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험철학
앎이 감각과 직접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영국 철학 전통(로크 등)입니다.

원시주의
배우지 않은 단순함이나 무지가 오히려 더 영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표지
감정이나 체험이 참 은혜에서 나온 것인지 가리는 성경적 기준입니다.

⚖️ **거짓과 참** ⌄

✅ 이 장의 결론

- 『신앙감정론』은 신앙을 도덕·감상·사회운동으로 바꿔치기하지 못하게 막는다.
- '새 감각'은 꿀을 맛보듯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아는 지식으로, 이성과 체험을 함께 지킨다.
- 감정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지만, 감정은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므로 성경의 표지로 시험받아야 한다.
- 절박함, 몸의 현상, 배우지 않은 순진함은 참 신앙의 증거가 아니다.
- 참 신앙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에 뿌리내리고, 평생의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로 확인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편 · 수련회의 뜨거움은 어디로 갔을까 · 에드워즈와 신앙감정론 지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